

# 무주 반딧불사과 가락시장으로

### 12일 40톤 첫 출하, 경매서 인기... '반딧불사과 맛·품질·안전성 최고'

지난 12일 서울 가락시장에서는 무주 반딧불사과(홍로) 초매식이 열려 이목을 집중시켰다.

초매식은 경매에 앞서 풍년을 기원하는 행사로 이 자리에는 황인홍 무주군수와 김범석 농협무주군지부장, 김성곤 무주구천농협조합장, 양시춘 무주군농협공동사업법인 대표, 신상범 무주군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가락시장 중앙청과 이원석 대표와 이영신 부사장 (사)전국 과실중도매인조합연합회 서울지회 정인실 회장과 임직원 등 40여 명이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무주군이 이날 서울 가락시장 내 중앙청과 출하한 물량은 무풍과 실천면 53농가에서 생산한 무주반딧불사과(홍로) 65톤으로 황인홍 무주군수를 비롯한 무주군 관계자들은 경매를 직접 참관하며 반딧불사과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등 판촉 행사를 벌였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이번 출하는 무주반딧불사과의 건재함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난해 병해 등의 피해로 수확량이 줄어 큰 어려움을 겪었던 농가들에게도 재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행정과 농협,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등이 합심해서 홍로에 이어 지속적으로 생산될 사과 품종은 물론, 또 다른 품목들도 연이어 출하할 수 있도록 반딧불농산물의 명성을 지켜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주=전문선 기자



제431주기 의암주논개 추모제가 순국일인 지난 10일(음력 7월 7일) 장계면 논개생가지에서 각급 기관단체장, (사)의암주논개정신선양회, 지역주민 등 관계자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됐다.

## '의암주논개 제431주기 추모제'

### 장수군, 순국일에 논개생가지서 관계자 등 250여명 참석 거행

'제431주기 의암주논개 추모제'가 순국일인 지난 10일(음력 7월 7일) 장계면 논개생가지에서 각급 기관단체장, (사)의암주논개정신선양회, 지역주민 등 관계자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됐다.

이날 행사는 국악연주, 한사낭송, 논개님의 혼을 모시는 '논개총절무' 공연과 추모사, 제례봉행, 헌공다례 순으로 진행됐다.

한병태 장수문화원장은 "불멸의 민족혼 논개님이시여! 당신은 순국하셨지만 우리를 가슴에 영원히 살아있고 불사조이며 민족의 애인이고 역사입니다. 논개님의 충·효·열 정신은 민족혼이었고 이제 국혼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추모사를 낭독했다.

이후 초헌관 최훈식 장수군수, 아헌관 최한주 장수군의회 의장, 종헌관 신봉수 선양회장, 다헌관 유경자 장수

군의회 부의장이 총절의 표상인 의암주논개의 정신을 기리는 제례와 헌공다례를 올렸다.

의암주논개는 1574년 장계면 대곡리 주촌마을에서 탄생했으며 1588년 6월 남편 최경회 형감을 따라 진주성 전투 참전 중 남편이 사망하자 남편과 나라의 원수를 갚기 위해 왜군 승전전에 참석해 왜장을 견안고 진주 남강에 뛰어들어 순국했다.

이에 장수군은 매년 음력 7월 7일 논개를 추모하기 위해 추모제를 지내오고 있다.

이번 제례는 논개의 숭고한 나라 사랑 정신을 기리고 군민의 화합을 기원하는 엄숙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의암주논개의 우국충절과 숭고한 정신을 가슴 깊이 새기고 그 정신이 후손들에게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 진안군, '장화홍련 미로의 비밀' 행사 성료

### 시대의 문 입장·달력 테스트·소원 구간 미션 등 진행

진안군은 미아산 북부 마이정원(구 미로공원)과 농촌테마공원 일원에서 열린 한여름 이색체험 행사인 '납량특집 장화홍련: 미로의 비밀'이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오후 5시부터 진행된 이 행사는 사전티켓 판매 및 현장판매로

약 500여명이 참여, 군민, 관광객 등 1천여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행사는 진안군에서 처음 시행하는 흑서기 탈출 미션형 공포체험 행사로 수국꽃 만발한 아름다운 마이정원(구 미로공원)과 진안역사박물관 일대에서 진안 출신 위인인 전동후 장

군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소설 '장화홍련'을 테마로 개최해 그 의미를 더했다.

'납량특집, 장화홍련: 미로의 비밀'은 특수분장을 한 귀신들을 피해 생명띠를 지키면서 시대의 문 입장, 달력 테스트, 소원 구간 미션, 미션을 수행하고 귀신은 원혼을 풀어주지 못하는 러너의 생명띠를 빼앗는 체험형 행사로 진행됐다.

참여자들은 오후 3시부터 특수분장 전문팀의 현실감 있는 분장을 받고 미아산 북부 일원을 돌아다니며 행사의 공포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공포체험 미션 수행 전후로는 인기 DJ와 함께 하는 호러 댄스파티 등 참가자들이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시원하고 화려한 무대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진안=우태만 기자



## 진안군, 임진왜란 응치전적지 순국선열 추모제 거행

진안군이 주최하고 (사)응치전적지보존회(이사장 손석기)가 주관한 응치전적지 순국선열 추모제가 지난 11일 진안군 부귀면 세종대에 위치한 청령사에서 열렸다.

임진왜란 응치전투에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쳐 싸운 선열들을 선양하기 위해 거행된 제례에는 초헌관에 전춘성 진안군수, 아헌관에 전용태 전북자치도의회 의원, 종헌관에 김용민 제773부대 1대대장이 참석해 각각 예를 올렸다.

임진왜란 당시 왜군이 개진 19일 만



에 수도인 현양을 점령하고 2개월 후 전라도를 제외한 조선국토의 전역을 장악하고, 1592년 음력 7월 8일 곡창지대인 호남을 장악하기 위해 금산·용담·진안을 거쳐 전주로 향하던 왜군 1

만여명과 조선의 관군과 의병 연합군 2천여명이 응치 일원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

이에 큰 손실을 입은 왜군은 결국 전주를 점령하지 못하고 진안을 거쳐 금산으로 후퇴하게 된다. 응치전투는 실질적인 조선군 최초의 승리로, 호남에서 확보한 전정물자와 군사력 등은 추후 임진왜란 극복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큰 의미가 있다. 이에 진안군 부귀면 세종리 산292-2 등이 지난 2022년 사적으로 지정됐다.

/진안=우태만 기자

## 장수군보건의료원, 온열질환자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

장수군보건의료원(원장 위상양)은 오는 9월 30일까지 온열질환자에 대한 응급실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히며 최근 폭염경보 발령에 따른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폭염 대비 건강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온열질환은 열에 장시간 노출시 발생하는 질환이고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방치하면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 열사병을 비롯한 열탈진, 열경련, 열실신 열부종 등이 해당한다.

특히 폭염으로 인한 건강피해는 건강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예방할 수 있으며 갈증을 느끼기 이전부터 규

칙적으로 수분을 섭취하고, 어지러움, 두통, 메스꺼움 등 초기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활동을 중단하고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 휴식을 취해야 한다.

폭염주의보·경보가 발령되면 가능한 더운 시간대(낮 12시~오후 5시까지)의 활동을 줄이고 불가피한 경우엔 챙 넓은 모자, 밝고 헐렁한 옷 등을 착용하면 온열질환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

유보배 의료지원과장은 "폭염에 건강할 여름을 지낼 수 있도록 온열질환 3대 기본 예방수칙인 물, 햇볕 차단, 휴식을 생활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 지역 소식통

### 진안고원치유숲, 여름철 숲속 독서문화행사

여름철 많은 피서객들이 더위를 피해 숲을 찾고 있는 가운데 시원한 숲 속에 위치한 진안고원치유숲(이하 치유숲)이 운영하는 숲속 작은 도서관을 찾는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도시의 아스팔트보다 숲은 3~7℃ 기온을 저감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치유숲은 도서관에서 책도 보고 숲에서 휴식까지 즐길 수 있는 여름 휴가지로 각광, 여름철 가족 단위 이용객이 늘고 있다.

이에 치유숲은 지난 9일(무더위 이기는 숲속 글쓰기 배움 행사)라는 주제로 독서 문화 행사를 열어 참석자들의 만족도를 두 배 더 높였다.

행사는 사전 신청한 3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숲 속에 있는 도서관이라는 특색을 살려 △자연을 둘러보며 생태감수성을 키우는 시간 △친환경 식이 체험 △독서법에 대한 교육과 책 읽기, 글 쓰기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진안=우태만 기자

### 장수장애인체육회, 소방서와 '장애인스포츠 체험' 실시

장수군장애인체육회(회장 최훈식)는 지난 7일 장수군 룬불구장에서 장수군소방서 구조대원들과 장애인 인식 개선에 이바지하는 '장애인스포츠 체험'을 실시했다.

'장애인스포츠 체험'은 비장애인에겐 다소 생소한 스포츠를 몸으로 경험하며 운동의 새로운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사회를 자연스럽게 접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조대원들은 '제4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배리어프리 스포츠 중 목단 스피드를 비롯해 레이저사격, 한궁 룬불 보치아 등 종목을 체험했다.

최훈식 회장은 "장애인스포츠 체험이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인식을 긍정적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